

## 2005 치유환경을 위한 학생작품 공모전 2005 Student Design Competition for Healing Environment

채 철 균\*  
Chai, Choul-Gyun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의 주최로 개최한 2005년 치유환경을 위한 학생작품공모전 입상작 전시회가 9월 28일 수요일부터 10월 1일 토요일까지 4일간 테헤란로 두산주택 문화관에서 개최되었다. 공모전 출품작에 대한 심사는 관련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틀간 실시되었다. 2005년 9월 25일(일요일) 1차 심사(심사위원 : 이정만, 김광호, 성기창, 채철균, 한기중)에 이어 2005년 9월 26일(월요일) 2차 심사(심사위원 : 이경희, 김진균, 이영수, 박영진, 강병근, 양내원, 오은진)가 많은 시간동안 심도 깊은

논의와 함께 이루어 졌다. 9월30일 금요일 연세대학교 이연숙교수의 “병원건축과 치유환경” 초청강연회와 더불어 시상식이 거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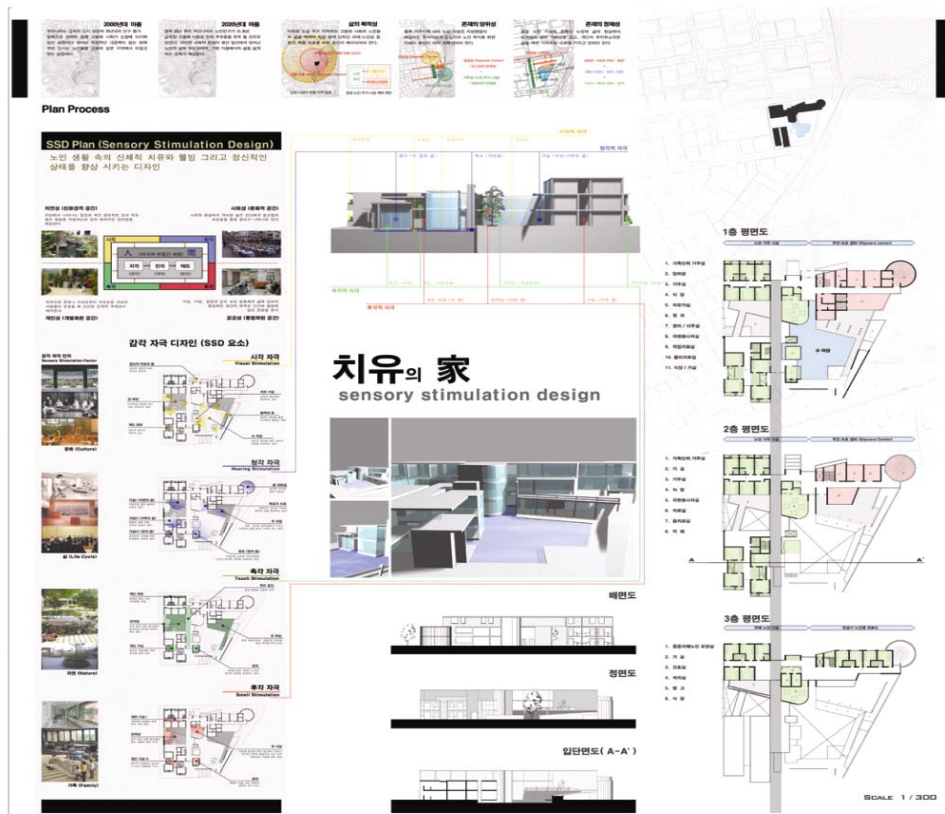
노인생활 속의 신체적 치유와 웰빙 그리고 정신적 측면에서의 접근을 통한 감각자극디자인(Sensory Stimulation Design) 개념의 적용을 시도한 조준영군과 순지혜양의 작품인 주제 <치유의 家>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와 함께 우수상 2작(정연두, 박경수: Rehabilitation\_Return to society / 안한주, 김우석: Reason of Coexistence), 특별상 1작(김지영: O<sup>2</sup> Mental Fitness Center), 장려상 4작(윤미선: Home Like / 서장완, 양준영,

\* 정희원, 광운대학교 건축학과 조교수, 공학박사

김희선: The Exchange of Handicap / 주연옥: Child Wellness Center / 유효환, 윤삼석, 나광식: Look at each Symbol), 입선 34작이 입상을 하였다. 2005 작품공모전을 계기로 하여 치유환경에 대한 관심 및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며 전시회를 마감하였다. 2005 치유환경을 위한 학생작품공모전을 위하여 장소를 제공하여 주신 두

산건설과 협찬하여 주신 동부건설, 한화건설, 대한건축사협회, 범건축, 무영건축, 에이텍건축, 대우건설, 동우건축, 정림건축, 희림건축, (주)태영, 원양건축, 공간건축, 삼성물산, 현대건설 및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우수작 “치유의 家”